



2024년 / 2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22일(월) ~ : 기부금 연말정산 본인 확인 가능 및 수정
- 2월 27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2월 29일(목) 18시: 2024년 정기 이사회

■ 연구원 소식

-연구원 이사회 안내드립니다.

2024년 정기 이사회가 2월 29일(목)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사업평가와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가 주요 안건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기획사업으로 추천하고픈 사업이 있으시면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오니 2월 27일(화)까지 연구원 SNS나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지난 한 해 후원과 참여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개시: 2024년1월 22일부터 진행중입니다.

기부금 합산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부금 내역이 다를 경우 언제라도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역사 속의 오늘

그때는 동방의 모스크바였다. 그때는... - 1960년 2월 28일

1946년 10월 항쟁부터 대구의 좌익세는 강력했고 한국전쟁으로 좌익이 싹쓸이된 뒤에도 도시 분위기는 진보적이었다. 1960년 대통령 선거.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급서하자 이승만에 반대하던 많은 국민들은 실의에 잠겼다. 신익희는 호남선 열차에서 쓰러졌고 조봉암은 이승만이 죽여 버렸다. 그런데 희망은 작게나마 남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 여든을 넘었으니 어느 날 아침이건 못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통령이라도 야당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희망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당 정권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철저한 부정선거에 나선다.

일요일이었던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 일제히 등교령이 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에 많았던 섬유공장 노동자들에게도 출근령이 전달됐다.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로 전날 토요일에 급작스럽게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조기퇴근을 시키더니... 이유는 간단했다. 토요일은 자유당 대구 유세였고 일요일은 민주당 대구 유세였던 것이다. 어떻게든 그 유세장에 갈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놓으려는 정권의 알팍한 술책.

경북고등학교는 갑자기 시험을 앞당겼고 대구상고에서는 난데없는 졸업식 송별회 연습이 거행됐다. 대구여고에서는 어설픈 무용대회가 펼쳐졌고 별안간 떨어진 소집령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그럼 영화라도 보자고 애걸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가운데 으뜸은 대구고등학교였다. 대구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유달리 자연친화적이었던지 이 날 '토끼사냥'을 핑계로 제자들을 불러냈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 산자락을 뛰어다니라는 것이었다. 이날 시위에서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격렬하고 전투적일 수 있었던 것이 선생님들의 '토끼사냥' 덕이었다는 후문도 있다.

자유당 정권의 얼척없는 행동에 학생들은 분노한다. 이기 뭐고? 2월 27일 토요일, 경북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 이대우, 대구고등학교 학생회장 손진홍 등 대구 시내 학교 대표 7-8명이 이대우의 집에 모였다. 아직 여드름 자국이 가시지 않은 '고딩'들.

그러나 그들의 각오는 사뭇 비장했다. “이거 하고 나면 우리는 퇴학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텐데 감옥 갔다 와서 취직은 우예 하고 뭐하고 먹고 사노.” 그러던 그들은 뜻밖의 노래로 의기투합하게 된다. ‘유정천리’. (대구일보 김풍삼 고문 증언) “ 가련다 떠나려나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 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즉 감옥 가고 취직 안되고 인생 조질 거 같으면 두메 산골에 들어가 감자라도 심으면 될 거 아니냐는 뜻이었다.

다음날 손진흥은 진창밭이 된 길을 자전거를 킁킁거리고 각 학교를 돌아다니며 시위 결정을 재확인했다. 교사들의 만류가 완강해 시위가 무산된 곳도 있었지만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거리 진출에 성공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고,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느 역사책 속에 있었던가?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려나.”(선언문 중) 대구 중앙로를 내달리면서 그들은 부르짖었다. “일어서라 동방의 햇불들아!”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그렇게 2.28 시위가 대구를 강타했다. 이 시위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그 두 달 뒤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 시위의 전초라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후 반세기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진동시켰고 전세계적으로 위력을 찾기 어려운 학생 운동의 시발이라는 점에서도 그랬다. 한국 ‘청년학도’의 깃발을 처음 들어 올린 것은 시대를 고뇌하던 명문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었다.

시위는 다른 시위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시민들이 그 시위에 뛰어들지도 않았으며 이승만 정권을 여전히 강고해 보였고 학생들은 무더기로 잡혀가고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불똥들은 이미 바짝 말라 버린 들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 불똥들은 3.15 부정선거라는 기름 세례를 받으며 불길로 화했고 불길은 들불로 타올라 이승만을 하와이로 가게 만들었다. 2월 28일의 대구가 없었으면 3월 15일의 마산이 없었고 3월 15일의 마산이 없었으면 4월 19일의 한국이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1960년 2월 28일의 대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동방의 모스크바였고 시대의 변곡점이자 시발점인 도시였다. 1960년 2월 28일 대구는 위대했다.